

AI 데일리 글로벌 마켓 브리핑

기술주 하락, 미국증시 혼조

- 미국증시 주요지수 혼조: 다우 +0.26%, 나스닥 -0.77%
- 엔비디아 실적 발표 앞두고 반도체 중심 기술주 약세 지속
- CNBC “미 재무부 바이백에 TGA 활용 가능”..국채금리 하락

Summary

미국증시 혼조 마감

현지시각 8월 24일 월요일 미국증시는 기술주 하락과 금융, 빅테크, 필수소비재 강세가 맞물려 지수별로 혼조 마감. 기술주 하락에 나스닥과 S&P500이 하락했고 금융 등 전통 산업주 강세에 다우지수는 상승.

다우존스 산업 평균 지수는 0.26% 상승한 53,417.16에 마감했고 S&P500 지수는 0.28% 하락한 7,652.86에 거래를 마칩. 나스닥 지수는 0.77% 하락한 25,980.19에 마감했고 나스닥 100 지수는 0.98% 하락, 러셀2000 지수는 0.76% 하락. 변동성 지수 VIX는 4.76% 상승.

(다우 +0.26%/ S&P500 -0.28%/ 나스닥 -0.77%/ 러셀2000 -0.76%)

반도체 등 기술주 약세 지속

이번주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AI 인프라 확대 수혜주를 비롯한 기술주 약세 압력이 지속되고 있음. 엔비디아라는 공룡의 실적을 확인하고 가자는 경계 심리 이외에도 최근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국채 금리가 근본적인 부담이 되고 있다는 해석. 금리 급등은 할인율 상승으로 미래 수익을 선반영하고 있는 AI 성장주의 밸류에이션 부담을 높이는 원인이기도 하나 이외 AI 붐을 주도해왔던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이 막대한 자본 지출을 위해 회사채 발행을 늘리고 있으며 때문에 고금리 환경은 이들 기업에 직접적 자금 조달 비용 증가 요인이 된다는 것. 자금 조달 비용의 증가는 빅테크 기업들의 설비 투자 속도 조절, 수익성 검증 본격화로 이어질 수 있는만큼 빅테크 기업들의 지출 확대에 인한 수혜 기업들의 경우 향후 매출 성장률에 타격을 입을 수 있음. 때문에 관련 기업 투자심리의 의미 있는 회복은 엔비디아 실적에 대한 안도와 더불어 금리 레벨의 추가 상승 제한, 나아가 하락 여건 조성과 맞물려 이루어질 것으로 보임.

미국-캐나다 무역전쟁 격화

국경을 맞대고 있는 최우방국, 캐나다와 미국 사이 무역 전쟁이 격화되는 양상. 미국과 캐나다는 지난 21일 밤, 무역 협상 결렬을 선언했으며 미국은 캐나다산 유제품과 목재 등 200억 달러 상품에 대해 50%의 관세를 부과. 이에 캐나다 역시 상응하는 수준의 보복 관세를 내달 8일 발효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양측은 협상 결렬의 책임을 서로 상대에게 전

가하는 등 감정 싸움을 이어감.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 1월 1일을 기해 캐나다산 자동차와 소형/대형 트럭, 자동차 부품, 그리고 철강에 대한 관세가 50%로 인상될 것이라며 재차 맞불을 놓음. 그는 캐나다에 대해 ‘오랫동안 미국을 갈취해왔고 우리는 캐나다가 필요 없으며 오히려 캐나다가 우리를 필요로 한다’고 주장. 물론 관세 인상 시점을 내년 1월 1일로 제시해 협상을 위한 시간적 여유를 열어줬지만 중간 선거가 치러지는 11월 이전 협상 재개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 캐나다는 이에 관세 조치로 타격을 입은 자국 기업 보호를 위해 장기 지원 패키지를 마련 중이라고 밝혔으며 캐나다 내에서도 국민 대다수가 대미 무역 협상 중단과 강경 대응을 지지하고 있음. 이날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번 조치가 다양한 소비재, 건축 자재, 제조용 부품에 타격을 줄 것이라며 “이번 무역 전쟁은 역사상 가장 어리석은 무역 전쟁이며 무차별적이고 전략 없는 전쟁은 트럼프의 저조한 지지율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고 지적.

CNBC “재무부, 장기채 매입에 TGA 활용할 수도”

이날 이란 제재 관련 발표 이후 기자회견에서 장기 국채 입찰 규모를 줄이는 것을 검토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정례적인 국채 입찰 프로그램은 계속할 것’이라고 답함. 그는 국채 입찰 규모에 대한 결정은 예정대로 다음 분기 국채 발행 계획 때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임. 최근 장기채 금리 급등과 이어진 재무부의 바이백 확대 발표 이후 일각에서는 추가적인 장기물 발행을 축소할 가능성이 제기됐으나 우선 이 가능성은 배제된 것.

이와는 별개로 이날 CNBC는 당국자 2명을 인용해 미 재무부가 약 1조 달러에 달하는 재무부 일반계정(TGA)을 이용해 국채 바이백에 나설 수 있다고 보도. TGA는 미 정부의 당좌 예금 계좌로, 세수 등을 통해 확보한 일종의 비상자금. 현재 TGA 잔액은 약 9,500억 달러 수준으로 이 돈이 장기채 재매입에 쓰일 수 있다는 것. 당초 시장에서는 재무부가 장기채를 매입하는 대신 단기채 발행을 늘릴 것으로 봤고 이는 ‘신용카드로 주택자금대출을 상환하는 발상’이라는 지적을 낳았을 만큼 결국 짧은 기간에 돌아오는 부담을 늘리는 조치라는 인식이 컸음. 때문에 실제 효과와 조치의 지속성에 대한 의문으로 바이백 확대 계획 발표 이후 급락했던 금리가 이후 이들에 걸쳐 급락분을 만회한 것으로 해석. 다만 단기채 발행에 일부 TGA 계정 자금을 혼합해 사용할 경우, 혹은 TGA 자금을 활용할 수 있다는 신호를 주게 될 경우 단기물 발행을 늘리지 않거나 최소화하면서 장기물을 시장에서 흡수할 수 있어 시장의 재무부 조치에 대한 평가가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물론 재무부가 현재의 TGA 수준을 유지하려면 결국 국채를 추가로 발행해야 하지만 TGA 잔액을 조금 낮게 유지하더라도 당장 큰 위험이 발생하지 않으며 충분한 TGA 잔액이 필요한 연방정부 부채한도 교착 상태는 내년 겨울, 혹은 그 이후로 예상되고 있으므로 잔액을 다시 쌓을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다는 점에서 역시 긍정적. 물론 이는 다시 말하면 결국 쓰고 채워야 하는 돈이므로 또 다른 형태의 임시방편이라는 지적도 없지 않음. 또 달러 약세와 인플레이 압력을 키울 수 있다는 경고도 있음. 다만 단기채 발행으로 모두 충당하는 안에 비해서 시장 충격을 완화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면이 이날 시장에서는 좀 더 크게 부각됨.

특징종목

S&P500 구성 섹터 중에서는 필수소비재(+1.76%), 금융(+1.24%), 유틸리티(+1.04%), 통신 서비스(+1.01%), 부동산(+0.59%) 소재(+0.30%) 등이 상승했고 IT(-1.59%) 섹터 낙폭이 가장 컸으며 이외 에너지(-0.76%), 산업재(-0.69%) 섹터도 하락.

AI 인프라 확대 수혜주 약세(ft. 반도체)

이번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엔비디아(-2.91%)는 7거래일 연속 하락해 2022년 이후 최장기간 하락을 기록. 이번 하락으로 최근 고점 대비 낙폭은 11%대로 벌어짐. 엔비디아는 AI 스타트업 퍼플렉시티의 기업가치를 300억 달러 이상으로 평가하는 투자 라운드 참여를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짐.

한편 반도체주를 비롯한 기술주 전반이 매도 압력에 시달렸는데 애플(+0.32%)이 중국 기업으로부터 부품을 조달하는 방안에 대해 미국 정부가 일부 허용할 수 있다는 보도가 주말 사이 나왔던 것, 그리고 전일 아시아장에서 삼성전자의 주주환원 규모에 대한 실망 매물 등이 출회됐던 것 등이 반도체 약세에 영향을 미친 이슈로 읽힘. 앞서 인베스팅닷컴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애플이 중국의 CXMT로부터 디램을, YMTC로부터는 낸드 플래시 메모리를 조달하는 방안에 대해 정책적으로 허용하는 안을 저울질하고 있다고 보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5.83%), AMD(-3.49%), 인텔(-3.12%), 웨스턴 디지털(-5.24%), 시게이트 테크놀로지(-6.51%), 샌디스크(-6.45%), 브로드컴(-2.63%), 램 리서치(-1.22%), KLA(-1.31%), 테라다인(-2.88%), 그리고 코닝(-2.86%), 코히어런트(-4.85%), 루멘텀 홀딩스(-4.22%), 코어워브(-1.82%),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5.56%) 등의 반도체, 서버, 장비, 광통신 등 AI 인프라 관련 종목 전반이 약세.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는 2.70% 하락했고 SMH(-2.43%), SOXL(-7.83%), SOXX(-2.67%), SOXQ(-2.69%), DRAM(-5.89%), DISK(-5.72%) 등 관련 주요 ETF도 대체로 2% 이상 하락.

웰스파고는 이번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마벨 테크놀로지(-3.27%)의 목표가를 240달러에서 310달러로 상향. 투자 의견 비중 확대를 유지. 다만 주가는 약세.

빅테크 대체로 강세

다만 빅테크 종목들은 반도체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상승. 메타 플랫폼스(+1.66%)가 AI 데이터센터의 클라우드 임대 가능성이 재차 수면 위로 부상하며 수익화 관련 긍정적인 면이 부각, 상승 마감. 아마존닷컴(+1.33%)은 AWS 컴퓨팅 수요 증가 기대가 여전한 가운데 상승, 구글 알파벳(+0.94%)은 클라우드 부문이 버라이즌과 전사적 AI 도입 확대를 위한 전략적 협력을 체결했다는 소식에 강세. 애플(+0.32%)은 중국산 메모리 조달에 대한 정부 승인 기대감이 일부 반영되며 상승, 이외 마이크로소프트(+0.84%)도 강세. 다만 테슬라(-3.83%)는 전일의 강한 상승세에서 벗어나 약세 마감. 캐나다산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 부과가 부품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

미국-캐나다 무역 전쟁의 파장

미국과 캐나다간 무역 협상이 결렬된 가운데 뉴코(+0.41%), 스틸다이내믹스(+0.26%) 등 미국 철강 제조업체 주가가 동반 강세. 캐나다 수입 철강과의 경쟁 부담이 줄어들고 미국 내 시장 지배력과 가격 결정력이 강화될 것이라는 기대가 주가에 반영.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2027년 1월 1일부터 캐나다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50%로 인상하겠다고 밝힘. 북미 지역 자동차 공급망에 대한 부담이 커지면서 육상 물동량 감소와 운송 비용 상승 가능성이 관련주에 부담으로 작용. 특히 자동차와 부품을 비롯한 미국-캐나다 간 교역 위축이 트럭 운송 수요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인식에 J.B.헛트트랜스포트서비스(-5.65%), 나이트-스위프트 트랜스포테이션(-3.46%), 올드도미니언프레이트라인(-2.42%) 등 주요 운송주가 약세.

이외 특징주

샤오펑(-8.53%)은 로봇틱스 사업이 9억 달러 이상의 자금을 조달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며 투자 후 기업 가치는 63억 달러 이상으로 평가됨. 이 자금은 피지컬AI 연구개발과 휴머노이드 로봇 양산에 투입. 2026년 말 양산, 2027년 상용 배치를 목표로 하고 있음. 한편 샤오펑은 EPS와 매출이 예상치를 하회한 가운데 이날 큰 폭 하락.

핀뒤(-1.48%)는 EPS가 예상치를 상회했지만 매출은 예상을 하회, 주가도 약세.

우주기업 로켓 랩(-5.91%)이 위성 통신 서비스 기업 이리디움 커뮤니케이션스(-3.43%)를 인수하기 위한 S-4/A 합병 신고서를 제출,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는 소식.

휴마나(+2.04%), 울프리서치가 투자 의견 시장수익률 상회를 유지하고 목표주가 기존 400달러에서 450달러로 상향. 메디케어 마진 상향에 대한 기대를 언급.

채권, 외환 및 상품 동향* 6시 10분, KST 기준

국채금리 하락

미 국채금리는 장기물을 중심으로 사흘만에 하락 전환. 재무부가 장기 국채 바이백 확대 계획에 재무부 일반 계정, TGA를 활용할 수 있다는 CNBC 등의 보도에 장기물 금리가 이틀 간의 상승을 접고 재차 하락했으며 단기물은 영향 미미한 가운데 장 중 보험권에서 혼조.

통화정책에 민감한 2년물 금리가 0.4bp 하락한 4.2316%를 기록했고 벤치마크인 10년물 금리는 3.8bp 하락한 4.6961%를 기록. 만기가 가장 긴 30년물 국채금리는 4.6bp 하락한 5.2245%를 기록. 장 중 10년물 금리는 4.68%까지, 30년물 금리는 5.20%까지 하락하기도 했으나 낙폭은 축소.

시카고 상품 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연방기금금리 선물 시장에서는 오는 9월 금리 인상이 이뤄질 가능성을 전장 30% 후반대에서 높은 42%대로 반영. 10월까지 금리가 인상될 가능성은 50% 중반대로 반영.

캐나다 달러 급락, 미국 달러 반등

미국 달러화 가치는 캐나다와 관세 전쟁이 격화되는 흐름 속에 캐나다 달러가 급락하며 반등. 대 이란 경제 제재 조치가 발표되면서 장 중 오름폭을 확대.

주요 6개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반영하는 달러인덱스(DXY)는 0.19% 상승, 98.989를 기록. 장 중 99.06선까지 상승하기도 했으나 고점에서 오름폭은 반납. 달러-캐나다달러 환율은 0.57% 상승(캐나다달러 가치 하락)해 2개월만에 최대 상승률을 기록.

전일 서울 외환시장 주간거래에서 전장 대비 4.10원 하락한 1,382.40원에 마감한 달러원 환율은 장 중 1,370원대까지 내려서 13개월만에 최저를 기록하기도 했음. 뉴욕 차액결제 선물환(NDF) 시장에서 최근 1개월물 스와프포인트(-0.15원)를 감안 시 서울 환시 주간장 종가 대비 0.85원 상승한 1,383.10원에 최종 호가.

국제유가 7거래일만에 하락

국제유가는 지난 13일 이후 7거래일만에 하락. 미국의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 내용이 공개된 가운데 연일 이어진 상승에 따른 이익 실현 움직임이 나타남. 미국의 이란에 대한 압박이 결국 고립된 이란의 수위 높은 군사적 반발로 이어질 가능성, 그로 인해 국제유가가 추가 상승할 위험성에 대한 관측도 여전히 제기되고 있지만 일단 이날 유가는 한 템포 쉬어가는 흐름.

뉴욕상업거래소에서 10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2.35% 하락한 배럴당 85.01달러에 거래를 마쳤고 브렌트유 10월물도 2.50% 하락한 배럴당 92.17달러에 거래를 마침.

최근 연일 상승 중인 국제 금가격은 장기물 금리 하락을 재료 삼아 추가 상승하며 3개월래 최고를 기록. 금속선물거래소 COMEX에서 12월 인도분 금 선물은 1% 내외 상승, 장 중 지난 5월 이후 처음으로 4,700달러선을 회복.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인공지능(AI) 기술을 사용하여 생성되었으며, 금융투자분석사의 감수를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각종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인공지능(AI)기술을 사용하여 생성되었습니다. AI가 생성한 본 조사분석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정보 취득의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신중한 판단과 추가적인 검증을 권장합니다. AI가 생성한 조사분석자료는 자체 검증과정을 거쳤으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조사분석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홈페이지 <https://securities.miraeasset.com> 에서도 이용할 수 있으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